



먹으러 가지 못했는데 앞으로 한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한국식당에 가자고 했더니 너무 좋아했습니다.

함께 일하는 미국 친구들이 한국음식을 무척 좋아합니다.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달라스 한국 식당에 가는 것이 저들의 소원입니다. (운전해서 1시간 거리입니다.)

또 저와 아주 친한 Cherry 가 2달동아 무척 아파서 저는 지난주 달라스 다녀오면서 북창동 순두부를 사다 드렸더니 자기병이 낫는 것 같다며 순두부 맛있다 아주 좋아했습니다.

제가 텍사스에 왔을 때 미국 친구들이 먼저 한국 음식,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제게 이야기하더군요. 그분들을 통해서 저도 한국 식당을 알게 되었습니다.

요즘 우리들 사이에서는(미국친구들) Korean Food 가 Healing Food 로 통합니다.

미국 어느 마켓에 가도 한국 고추장, 된장, 김치, 라면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.

제가 독일에 있을 때에도 웬만한 마켓에 고추장과 한국라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.

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교 한국을 통해 세계 선교의 길을 열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.

이번 미주 KWMC 에서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7월 8일 ~ 12일까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열립니다. 500여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하고, 300여 교회와 200명의 자원봉사가 참석한다고 합니다.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도록, 선교대회를 통해 100명이상의 선교후보생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로써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저도 난민 사역 강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 성령 충만하게 은혜롭게 보고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.

✚ 중보기도 함께 나눕니다.

1. F W 이 지역의 난민들의 부흥을 위해, 아프간 소망교회 개척을 위하여.
2. Emad 형제 초청 수속이 잘 이루어지고 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
3. 난민 사역으로 섬기는 ESL (영어학교), 다양한 난민사역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도록
4. 7월에 있을 KWMC 한인 세계 선교대회위의 “예수 구원의 그 이름” 의 역사를 위하여